

# 에코시티 화정마을 앞 도로 확장

## 2019년까지... 초포로 연결하는 274m 구간 폭 7~8m를 15m로 확장하고 양쪽에 인도 설치

전주시가 에코시티 주변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연계도로를 추가 확장한다.

시는 에코시티에 입주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현재 공사 추진 중인 에코시티 연계도로 3개소와 인근 화정마을 앞 도로를 오는 2019년까지 추가 확장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해당 도로는 에코시티 사업지구 경계에서 초포로를 연결하는 274m 구간으로 시는 기존 도로 폭 7~8m를 15m(2~3차로)로 확장하고 양쪽에 인도를 설치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공사비 20억(민자)과 보상비 15억(시비) 등 총 35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향후 에코시티 입주가 완료되면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지만 별도의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양방향에 인도도 설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12월부터 조사 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도시관리계획(안) 입안 서류를 작성 중이며 4월 중으로 도시관리계획(안) 입안, 주민 의견청취, 도시관리계획심의위원회 등의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8월까지 보상절차를 완료하고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2019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호성동 고당네거리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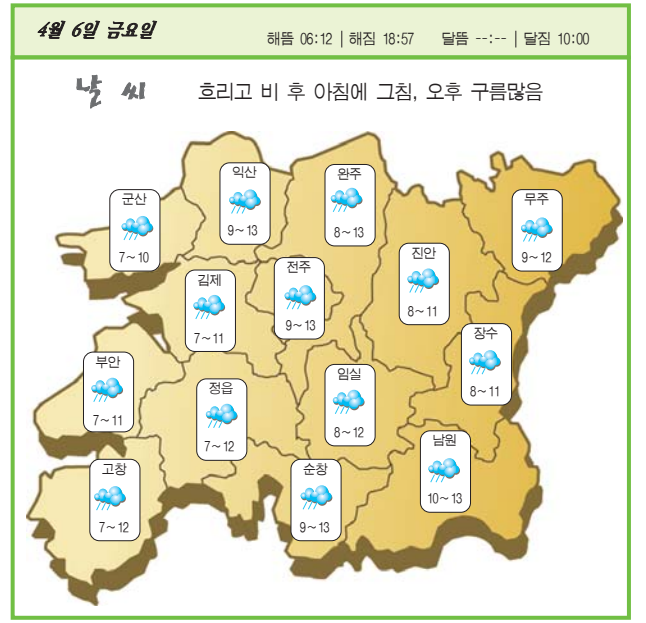
에코시티 사업지구 경계에 이르는 초포로 구간과 송천동 동부대로에서 에코시티 사업지구, 전미동 미산초등학교에서 에코시티 사업지구로 이르는 전미로 구간 2개소를 포함한 총 3개소를 기존 도로 폭 8m에서 20~25m(4차로~5차로)로 확장하는 에코시티 연계도로 사업을 해왔다.

이 뿐만 아니라 에코시티 입주가 완료되고 연계도로 3개소가 개설된 이후에는 호성동 화정마을 앞 도로의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에코시티 연계도로 3개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사업자(주)에코시티에 화정마을 앞 도로를 추가 확장 개설할 것을 지

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 결과 민간사업자는 시의 요구를 수용해 화정마을 앞 도로를 추가 확장하기로 결정했다.

조석원 신도시사업과장은 "화정마을 앞 도로 확장을 기존 연계도로 3개소와 병행 추진해 2019년 공사가 마무리되면 에코시티 인근 도로 교통량 조기 확충 및 교통 체증 해소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에코시티에 본격적인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에코시티 연계도로 4개소 개설을 신속히 추진해 전주 북부권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 참학력 지원단 합동 워크숍

참학력 학교 역량강화를 위한 참학력 지원단 합동워크숍이 5일 오후 전주 오벨리스 5층에서 열렸다.

워크숍에는 초·중·고 참학력 지원단, 참학력 학교 담담교사,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 참학력 학교 운영 방안과 참학력지원단 활동방향 등을 협의했다.

이날 오후 4시30분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후 5시부터 시작된 1부에서는 참학력 학교 운영 방안과 운영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저녁식사 후 이어진 2부에서는 학교담당자 및 컨설턴트가 나와 참학력 학교 운영계획서에 대해 컨설팅을 한 뒤, 참학력 신장을 위한 원탁토론을 벌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합동 워크숍은 참학력 신장을 위한 실천체계를 공유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자리"라며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과 참학력 학교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참학력 학교가 초등학교 27교, 중학교 26교, 고등학교 59교 등 총 112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참학력지원단은 총 140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상민 기자



비와 산수유꽃 절기상 청명이자 비내리는 5일 오후 어느 거리에 핀 산수유꽃 너머로 우산을 쓴 시민들이 길을 걷고 있다.

## 전주 종합경기장 E-SPACE(회의실) 무료개방

### 사용일 기준 3일전 주차운영부로 신청해야

전주시설공단은 시설자원의 개방·공유를 통해 시민에게 공공자원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비영리단체나 공익단체, 동아리, 소규모 단체 등의 세미나 및 간담회, 회의, 교육 등의 공간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열린 커뮤니티 공간을 무료로 개방한다.

개방하는 공간은 전주종합경기장 내 주차운영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E-SPACE(Emotion Meeting Room) 공간으로 면적은 28.5mm, 동시 수용 인원은 15~20명 정도이며 노트북, 빔프로젝터, 스크린, 단상, 책상, 의자 등 시청각 설비 및 시설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일 기준 3일전에 전화, 팩스,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회 2시간 이내로 연중(09:00~18:00) 사용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확인 및 전주시설공단 주차운영부(☎239-2643)로 문의하면 된다.

공단은 이밖에도 화산체육관 내 t-space, c-space, i-space의 시민 공유공간을 조성해 개방중에 있으며 추후 '시민행복뜰' 조성 사업으로 유희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민을 위한 공간을 개방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채규남 기자

## 전주시, 1분기 이월체납액 63억원 징수

### 7억원 초과달성

전주시는 올해 1분기 63억원의 이월체납액을 징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액인 58억원보다 7억원을 초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시 산하 징수담당으로 구성된 '고액체납액 현장징수단'을 운영, 전년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이월액 205억원을 징수하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했다.

현장징수단은 고액체납액 징수를 위해 93명에 대해서는 전복도에 명단공개를 요청했으며 상습체납자 4명을 법무부에 출구금지 요청했다. 또 고질체납자 12명에 대해서는 소유재산을 공매예고한 후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할 예정이다.

또한 '비과세 감면분'에 대한 세원 발굴 조사단 운영과 연계해 12억원을 추징했고 과태료 등 여러 세외수입 부서에서 이관된 500만원 이상의 고질체납액에 대해서는 4억원을 현장 징수했다.

전주시 김상용 세정과장은 "2분기에도 시·구·동 합동으로 세입부서 행정력을 집중해 상반기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체납자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 기간 동안 체납액을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 전주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 134개 확충

전주시가 교통사고와 조난 등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자신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을 확충한다.

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아중호수길 등 9개 도로구간에 주요건물이 없는 도로에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을 134개 추가 설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기초번호판을 활용해 기초번호(건물이 있는 경우는 건물번호)를 기준으로 정확한 사고 위치를 알아내 경찰서·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어 신속한 응급구조 활동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엔 기초번호판이 설치된 한벽루에서 동부대로까지 이어지는 비탈길의 경우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구간임에도 주변에 건물이 없어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위치를 설명하기 어려운 곳이었으나 기초번호판이 확충되면서 이같은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종엽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이번에 설치된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이 긴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외곽지역 및 건물이 없는 도로에 기초번호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